

중국의 전자산업 한일간 수입구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 수입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서 최근 발간된 중국의 대한민국, 일본, 대만의 수입구조 비교분석에 따르면,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연이어 이어지면서 중국 내수시장과 수입 여력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1964년 도쿄올림픽이나 1988년 서울올림픽과 같이 내수시장 발전의 계기로 작용하면서 중국이 세계공장에서 세계시장으로 변신해 주기를 세계 경제가 기대한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수입수요를 중국이 대체해 세계 성장동력으로 역할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성장동력으로 부상

중국 정부도 4조원 위안대의 대규모 내수부양책을 발표하는 등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전략을 내수 수출 병존형 발전전략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내수부양책과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

의 대폭 절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008년 말부터 큰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대중국 수출구조와 특징은 물론 중국 수입시장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특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이후 세계 조립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일본, 한국, 대만은 중국에 부품 소재를 수출하면서 중국의 3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고, 상호 간 강한 경쟁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수입시장과 한국의 대중국 수출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비교 분석해 보는 것이다. 3국간 산업별, 품목별 경쟁구조 분석은 정부와 기업의 대중국 내수시장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내수용보다 수출용 원부자재

2008년 중국 수입규모는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산업별 수입 집중도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정밀기기, 전기전자, 제1차금속에서 높은 수입집중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석유화학에서, 일본은 일반기계와 수송장비, 대만은 섬유가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집중도를 나타낸다.

에서 세 번째로 1조 1,331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중국 수입에 세계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7년 6.6%로 두 배가 성장하였다. WTO 가입후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활용하면서 수출용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조달하여 수입이 폭증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수입액은 2007년 729달러에 불과하여 세계 평균치인 2,174억달러에 크게 미달, 앞으로 수입 확대 잠재력은 매우 큰 편이다.

중국 전체 수입의 57.9%가 부품소재이며, 나머지도 석유와 철광석, 농산물 등 자원성 물자들이며, 소비재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수입되는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출용 원부자재로 활용되며, 수입업체들도 중국계 기업보다는 중국 현지의 외자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의 산업별 수입구조 역시 수출구조를 반영하여 전기전자부품과 석유화학 소재에 완전 집중되어 있다. 전기전자의 수입비중이 31.9%, 석유화학이 23.4%로 이들 수 산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전자, 석유화학의 수입 비중 절반 넘어

최근 중국의 수출구조가 디지털 가전제품으로 고

도화되면서 액정디바이스 등 정밀기기의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섬유가죽 등은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수입증가를 역시 크게 둔화되고 있거나 심지어 품목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률도 보인다. 산업별 무역수지에서 전기전자와 섬유가죽은 흑자로, 석유화학과 정밀기기는 적자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WTO 가입 이후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대만은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2년 18.1%에서 2007년 14.0%로 4.1%포인트 감소하였고, 대만 역시 동기간 12.9%에서 10.6%로 2.3%포인트 감소하였다.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9.7%에서 10.9%로 오히려 1.2%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한국은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은 증가세, 일본 대만은 감소

일본, 대만, 한국 모두 대중국 투자와 대중국 수출입 간에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후 2년, 대만은 3년에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3국 모두 지리적 근접성을 배경으로 대중국 투자업체와 본국 자회사 간 기업내 공정분업 또는 산업

내 분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국 투자가 대중국 수출입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과 달리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을 정리해보면, 첫째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에 적극 부응하면서 중국의 수출용 부품수출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새로운 산업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대중국 수입을 유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은 2002년 이후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면서 대중국 수출 유발요인이 약화되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핸드폰, 액정디바이스 등 신규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면서 대중국 수출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이다.

중국의 수출고도화에 부응으로 점유율 높아

일본, 대만의 대중국 수입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현지 투자업체들의 현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자국으로부터 수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본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다가 동반 하청업체들이 중국에 투자하면서 저부가가치 또는 노동집약적 부품부터 현지화를 진행하였다.

3국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원부자재 조달의 현지화 비중이 낮아지고 현지 생산의 기술집약도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였다. 대만이나 일본보다 대중국 투자 진출 시기가 늦은 한국의 대중국 수입 점유율이 2005년을 정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업별 수입집중도를 보면, 한국, 일본, 대만 모두 정밀기기, 전기전자, 제1차금속에서 높은 수입집중

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석유화학에서, 일본은 일반기계와 수송장비, 대만은 섬유가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집중도를 나타낸다.

3국 모두 전기전자, 석유화학이 수출 주력산업

한국, 일본, 대만의 대중국 3대 주력 수출산업을 비교해보면, 모두 전기전자와 석유화학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과 대만은 정밀기기, 일본은 일반기계를 각각 포함한다.

전기전자는 3국간 치열한 경쟁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은 메모리와 자기헤드 등에서, 대만은 비메모리와 인쇄회로기판에서, 일본은 콘덴서 등 전통적 전기전자 부품에서 강세를 보인다.

3국 모두 자국 계열의 대중국 투자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구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수출하기도 한다. 제1차금속, 일반기계, 정밀기기, 수송장비는 일본의 압도적 우위 속에 품목에 따라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는 구조이다. 일본은 고부가가치제품을, 한국과 대만은 중간 가격의 제품을, 중국은 저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동북아 분업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밀기기의 액정디바이스는 한국과 대만이 강력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취약한 면이다. 자동차는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규모로 투자하여 동반 수출이 많은 편이나 대만은 완성차업체의 투자 규모가 작아 중국 부품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액정디바이스에서 한국과 대만이 경쟁

2002년부터 2007년 동안 중국 수입시장에서 점

유율도 상승하고 수입집중도도 상승하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산업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전기전자, 정밀기기, 수송장비의 3개산업이고, 일본은 일반기계와 제2차금속의 2개, 대만은 정밀기기 1개이다.

수입집중도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동시에 낮아지는 산업으로 한국은 일반기계, 석유화학, 제1차금속, 섬유가죽의 4개, 일본은 섬유가죽, 전기전자, 정밀기기의 3개, 대만은 섬유가죽, 일반기계, 석유화학, 수송장비, 제1차금속의 5개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반기계, 석유화학, 제1차금속, 섬유가죽에 대한 대중국 진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 보다 강한 대중국 시장 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 특히, 일반기계와 제1차금속속에서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오히려 동태적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위기일수록 對중국 공격적 경영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중국 신규 산업, 특히 부품과 소재를 중심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이를 대중국 투자로 연계함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글로벌 전략 중심축으로서 중국 현지사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과거 대만사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와 기술력 부족이 결국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저하로 나타났다. 위기일수록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공격적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현지기업과의 부품소재 조달 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부품소재시장은 스팟마켓이 아닌 장기적 하청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중국 현지기업과 거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포석과 노력

이 필요하다. 당장은 장기적 거래구조가 정착된 중국 토종기업들보다 부품조달에서 가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외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부품조달관계를 확대해야 한다.

중국 토종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제품 공동개발부터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엔지니어의 중국어 구사가 선행 조건이다. 부품소재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한국 기업과 조립가공이 강한 중국 업체간에 안정적인 부품조달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부터 공동으로 진행함이 바람직하다. 양국 기술자간, 기업간 제도적 네트워크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출 부진산업 대비책 절실

대중국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일반기계, 석유화학, 제1차금속, 섬유가죽에 대한 대중국 산업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기계와 제1차금속은 대중국 진출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중국의 수출구조 고도화가 첨단산업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입수요의 고도화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중국의 수출 주력산업이 디지털가전, 승용차, 조선 등으로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 수요 역시 고기술, 고부가가치 부품소재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이미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제조에서 벗어나 일부 프리미엄 제품과 응용 연구개발 영역으로 진입하면서 한국과 격차를 좁히고 있어 대비책을 세워야한다. 한국은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영 역량을 크게 강화해야 하며, 액정디바이스와 반도체의 중국시장 진출은 좋은 성공사례이다.

미국 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 감소, 내수부양책 추진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는 대신 중국정부의 강력한 내수정책으로 소비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사회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수부양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향후 2년간 4조위안에 달하는 재정투입이 된다.

내수부양정책에 유망한 분야는 철도, 인프라 확충에 IT, 철강 등 소재산업과 환경친화적 성장정책에 환경설비,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에 미래 산업과 핵심 부품산업을 들 수 있다.

일본 엔화나 대만 달러에 비해 중국 환율시장에서 한국 원화 가치가 급격히 절하되고 있어 대중 수출에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08년초 대비 2008년 말 중국 위안화 가치는 일본 엔화에 대해 9.2% 절하되었고, 대만 달러에 대해 1.4% 절하되었으나 한국 원화에 대해 35.8%나 절상되었다.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제고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2만여개의 한국 제조업체가 가동 중이어서 중국에서 실패는 국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 중국 경제의 변화 요인을 철저히 상시 점검 체제, 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차이나리스크 높아져

국제 원자재가격이 최근 급락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에서 원부자재와 부품가격도 요동을 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고 물량을 급격하게 조정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등 차이나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수시장 동향과 수급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

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정부, 협회, 기업 내에 중국시장 모니터링팀을 상설로 운영하면서 기업에 시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 여건이 매우 악화되면서 외국 투자기업의 무단 철수도 빈번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합법적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정부간 원활한 대화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2007년간 중국의 전기전자 수입시장의 3국간 연평균 점유율을 보면, 일본이 15.4%로 1위, 대만이 14.6%로 2위, 한국이 13.5%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2002년부터 2004년에 비해 4.3%포인트, 0.4%포인트 각각 감소하였으나 한국은 2.1%포인트 증가하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07년 한해만 보면, 일본이 15.0%, 대만이 14.6%, 한국이 13.7%로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전기전자 상위 15대 품목의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1위

2007년도 HS 6단위 기준, 전기전자 420개 품목 중 상위 15대 품목의 중국 수입액 가운데 3국간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대만이 17.2%로 가장 높고, 한국이 16.1%, 일본이 12.5%를 나타내, 전기전자 전체 점유율과 차이가 있다. 이들 수입 상위 15대 품목의 집중도를 보면, 대만이 82.1%, 한국이 80.5%, 일본이 55.2%를 기록했다. 대만이나 한국이 일본에 비해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대중국 협력구조가 취약한 것이다.

2000년대 초 섬유산업처럼 중국이 국산화를 이루어 수입대체할 경우 대중국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상위 품목들은 대부분 중국의 수출용 원부자재이며, 한국과 일본, 대만기업이 본국에서 1차 가공한 후 중국의 현지 공장에서 2차 가공을 하

여 중국 내수시장 판매, 제3국 수출, 본국으로 역수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 전기전자에서 우위

일본은 전통적 전기전자 분야에서 우위이며, 상위 15개 품목 중 7개에서 1위이다. 어업용에서 사용되는 레이더기부품은 일본이 32.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한국과 대만은 12.2%, 10.9%를 차지한다. 변압기와 전기접속함, 개폐기부품 등은 전통적 전기제품으로 일본이 강세를 갖고 있다.

니켈수소전지는 일본이 수입시장 점유율 40.3%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한국이 26.8%로 일본과 경쟁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대만은 2.3%로 미미한 편이다. 중국이 노트북과 휴대폰은 물론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의 세계 공장으로서 부상하면서 니켈수소전지 외에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수입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이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콘텐츠와 반도체 개별소자를 포함한 미절단 웨이퍼는 이동통신, PC, 자동차, 가전제품, 조명기기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일본이 강세이다. 세계 8대 세라믹커패시터가 모두 중국에 진출했으며, 중국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북경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장이 설립되었다. 일본계 기업으로는 무라타, TDK가 있으며, 한국계 기업으로 삼성전기가 있다. 이들 기업이 생산한 제품은 주로 자국계 기업에 납품되며, 자국에 역수입되기도 한다.

한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비교 우위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핸드폰 등 신산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15개 상위 품목 중에서 5개에서 1위이다. 한국은 전통적 우위 품목인 메모리반도체에서 중국 전체 수입의 34.3%를 차지한다. 삼성

과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본사 모기업과 중국 현지기업간 기업내 공정 분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다.

자기헤드는 한국이 강세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중국 내수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면서 한국산 자기헤드의 중국 수입 비중도 높은 편이다. 한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23%이며, 대만은 9.6%, 일본은 4.4%이다. 메모리를 모듈화한 주기억장치는 한국이 수입 점유율 7%이고, 일본과 대만은 1% 미만이다.

전화기부품은 삼성전자 핸드폰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성공에 힘입어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 시장점유율은 19.8%이고 일본과 대만은 5.3%, 3.9%이다. 핸드폰, 스피커에 활용되는 증폭기는 한국산 수입시장 점유율이 17.8%, 대만이 15.1%이고, 일본은 9.5%이다.

대만은 비메모리반도체에서 우위

비메모리반도체에서 우위를 대만이 보이고, 상위 15개 품목 중 3개에서 1위를 차지한다. 비메모리 전자집적회로는 대만의 수입점유율이 19.5%로 가장 높고 한국이 12.9%, 일본이 11.8%이다.

중국 집적회로는 북경지역, 상해, 소주를 포함한 장강델타지역, 심천, 주해를 중심으로 한 주강델타지역 등 3대 클러스터에서 집중 생산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수출된다.

비메모리 전자집적회로는 LCD 구동용, 플래시메모리, 그래픽카드 등에 사용되고 대만, 한국, 일본 본국에서 1차 가공한 후 중국 현지에서 2차 가공하여 중국 내수용 또는 수출용으로 판매된다. 대만의 대표적 비메모리 생산업체인 프로모스와 난야 모두 중국에 진출하여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내 무

역이 성행한다.

인쇄회로기판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만이 전통적인 강세를 갖고 있으며, 중국 전체 수입의 27.8%를 차지한다. 컴퓨터 무선전화기기, TV에 사용되며 중국에 진출한 대만 기업들이 주로 대만제 제품을 수입한다. 일본이 13.9%, 한국이 12.9%를 차지한다.

정밀기기 수입시장에서 대만이 27.2%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밀기기 수입시장의 연평균 점유율에서, 대만이 27.2%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22.5%로 2위이고 일본이 15.2%이다. 한국과 대만 모두 액정디바이스 중심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컴퓨터, 노트북, 컬러TV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부품 수입수요도 급증한 것이다.

2007년 HS 6단위 기준, 정밀기기 198개 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1%로 중국 수입구조가 소수 품목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다. 중국의 상위 10대 품목 수입 집중도를 비교해보면, 대만과 한국은 98.4%와 98%를 차지해 집중도가 매우 높은 구조이며, 일본도 77.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국과 대만은 TV, 컴퓨터에 소요되는 액정디바이스가 전체 정밀기기 수입의 88.5%, 79.5%를 차지해 단일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액정디바이스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면 수입이 대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액정디바이스 수입시장점유율은 대만이 1위

디지털가전에 사용되는 액정디바이스의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38.1%로 1위이다. 한국이 32.1%로

2위이고, 일본은 8.6%로 부진하다. 중국 액정디바이스산업은 이미 세계 최대의 흑백, 컬러 패널 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으며, TFT-LCD영역에서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07년 기준, 중국은 2세대에서 4.5세대까지 중소형 TFT-LCD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TFT-LCD 패널과 모듈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면서 국산화가 진행중이다. 대형 TFT-LCD 패널은 아직 발전이 부진하여 5세대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은 4개에 불과, 대규모 수입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LCD 패널시장은 한국과 대만계 현지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중국과 한국간, 대만과 중국간 기업 내 공정분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확대경 등 부품은 대만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46.1%로 거의 절반에 가깝고, 일본이 32.8%로 대만과 일본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4.5%이다.

일본은 대부분 정밀기기에서 압도적 우위

액정디바이스와 확대경을 제외한 10대 정밀기기 분야에서 일본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리즘, 습도자동조정기 등 기타, 기타 자동조절용 부품에서 한국이 대만보다 더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편광재료제의 판, 반도체웨이퍼 검사기기 부품, 광학식 표면 테스터는 대만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 웨이퍼는 한국도 시장점유율이 9.9%로 대만과 경쟁관계를 나타낸다. 물리분석용기기와 사진기용 대물렌즈는 한국과 대만이 수입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으로 일본과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